

지역농협 시설공사 '최저가 낙찰제' 논란

A농협, 적정가 60%수준 계약

“저급자재 투입 부실공사 우려”

도내 건설업체 과열경쟁 반발

강원도내 일부 지역농협들이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 지역농협과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도내 A지역농협은 지난 8~

9월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건축, 기계냉장설비, 전기 분야에 대한 시설공사를 발주했다. 해당 지역농협이 적정 공사금액이라고 판단한 기준가격은 건축분야 11억8019만여원, 기계냉장설비분야 1억8513만여원, 전기공사분야 1억420만여원 등이다.

그러나 개찰결과, 건축분야는 기준가격의 60.5% 수준인 7억1480만원, 기계냉장설비분야는 64.9%인 1억2033만여원, 전기분야는 45.9%인 4785만원에 낙

찰됐다.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되면서 건설업체들도 적정가격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공사가격으로 제시한 것이다. 도내 B 지역농협도 최근 선별 및 집하시설내 저온창고공사를 위해 도내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공사를 발주했다. 적정공사금액으로 제시한 기준가격은 1억5478만여원이었으나 최저가 경쟁 특성 때문에 공사적정가격의 67.8%인 1억500만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지역농협들이 최저가 낙찰제

를 고수하자 도내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농협이 과열경쟁을 부추겨 최저가로 발주할 경우 공사금액을 맞추기 위해 저급자재와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내 A지역농협 관계자는 “당초 이번 공사 낙찰률이 70% 정도로 예상됐지만 최저가 낙찰로 인해 더 많이 떨어졌다”며 “적정공사가격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현재 공사상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신관호

“평화올림픽 이뤄 남북 간 교류협력 정상화”

인터뷰 - 조창진 강원지역회의 부의장

오늘 강릉서 민주평통 전체회의

“평창의 평화올림픽 완성과 함께 남북 지자체 간 교류협력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회의가 31일 강릉에서 열리는 가운데 조창진(사진·G1강원민방 대표이사) 강원지역회의 부의장은 30일 “이번 회의가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림픽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과제는 북업 조성”이라며 “이번 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올림픽 북업 조성 등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부의장은 올림픽 북업과 직결되는 입장권 구매에 관한 강원지역회의



차원의 협력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강원지역회의는)내달 9일 도와 올림픽 입장권 구매 5000만원 약정식을 갖는다”며 “세계 유일 분단도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 평화올림픽이 완성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금강산 관광 등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과거처럼 남·북 강원도 간 지자체 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원지역회의의 결집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부의장은 “과거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평창올림픽을 연계,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 사업도 다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대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강원지역회의 차원의 응집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은

건협 강원도회, 최고경영자 제주연수 실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 인철)는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주도에서 '2017년 최고경영자 제주 연수'를 실시한다고 30

일 밝혔다.

도회는 회원사의 경영능력 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 이번 연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